

농촌성과 도시성의 인식론적 이해

김정태 · 강동우* · 이성우**

한국농어촌공사 ·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of Urbanism and Rurality

Kim, Jung Tae · Kang, Dongwoo* · Lee, Seong Wo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nstitute of Regional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pistemology of urbanism and rurality, that is, the justification of certain knowledge claims about how to intervene in understanding of urban and rural way of life and their implications to space.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search for "truth" as such, but rather with the construction and presentation of knowledge as truth that subsequently lead to interpretation in the form of scholarly arguments. Rural areas vary considerably, and we define it as of a socially constructed category and so does urban as a comparative construction. As with community, rurality has been defined in widely different ways so has urbanism. In identifying and interconnecting these two concepts, we incorporate diverse western epistemologies such as empiricism and pragmatism. In addition, we hee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ntellectual history of Silhak, a philosophical ideology of Korea,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nd its effect on social way of life encompassing the realm of rural and urban spaces. We found that Silhak is particularly useful in that it deals with substantive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ity and urbanism arising from the discordance between values and perceive conditions of the rural and urban way of liv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epistemology of Silhak is particularly superior to those of western ideologies since it accentuates unity of spaces rather than differentiating urban and rural way of life. We concludes with demanding more studies in the field of urban and rural analyses incorporating more diverse concepts of Korean orthodox epistemology.

Key words : epistemology, rurality, urbanism, Silhak, empiricism, rationalism

1. 서 론

농촌성(rurality)과 도시성(urbanism)의 해석학적 의미는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조명된다(Ilbery, 1998; Macionis and Parrillo, 2004). 이론적 배경의 바탕이 되는 철학의 상이함은 연구의 출발을 다르게 규정하는데(Madsen and Adrainsen, 2004), 동서양의 철학은 그 방향이 다르게 발전하였다. 인식론은 '지식과 믿음의 정당화'(Dancy, 1985) 또는 '개념 및 명제와 같은 지식(knowledge) 영역과 경험 및 사

물과 같은 객체(objects) 영역간의 조화 또는 일치(correspondence)를 추구하는 이론'(Hindess, 1977)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실제적 진실과 해석의 올곧음은 해석 기준의 상이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식론적 전통으로 실학을 규정하고 영국의 경험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의 인식론적 사고를 비교하여 농촌성과 도시성에 대한 인식론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또는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는 해당 요인이 개체의 요건에 귀속되는 1차적 요인과 외부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2차적 요인으로 구별되는데, 공간변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국가정책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Barns and Sheppard, 2003: 6-9).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Corresponding author : Lee, Seong Woo

Tel : 02-880-4744

E-mail : seonglee@snu.ac.kr

의 사회적 변화는 시장에 기저하고 있는 "비가시적인(invisible)" 동력과, "가시적인(visible)" 국가 정책의 개입에 주로 기인한다(Friedmann, 1987). 하지만 "(모든) 사회 변화는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론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푸코(Foucault, 1994)와 하버마스(Habermas, 1994)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변화의 이념적 체계를 구축하는 인식론적 흐름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논의라 하겠다. 즉, 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철학적 사조에 기초한 인식론(epistemology)이 사회 변화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학적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남인, 2004).

농촌성 및 도시성의 해석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해석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만약 '농촌 및 도시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모습'으로 접근한다면 농촌 및 도시 공간(space)의 실체적 진실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삶의 모습(way of life)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농촌성과 도시성의 올바른 해석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성과 농촌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인식론(epistemology)적 사고와 결합되면 실체에 대한 해석학적 다양성이 부가된다. 해석의 기준이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문화 속에서 배태된 인식론적 흐름 속에서 실체(reality)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논의를 따른다면(이남인, 2004), 한국사회의 농촌 및 도시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배적인 인식론적 지적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인식론적 전통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대변되고 있다면 한국의 인식론적 전통은 유교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사상적 전통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¹⁾를 관(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유교를 한국의 전통적 인식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발생사적 기원'과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력'의 시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유교사상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서 작용했으나, 이는 중국의 지적 전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교는 조선중기 이후 한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고유의 독립적 사회사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며²⁾,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바탕으로 인식론적 차이가 나타났고(박성규, 2002),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는 실학의 다양한 사상의 모태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유교적 사상에서 공간적 함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인데³⁾ 이는 유교가 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와 이에 따른 규범적 사회문화의 형성을 규정하는 '도덕률'에 치중하여, 객체의 영역을 규명하는 지식연구의 방법론적 측면

에서는 취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국고유의 인식론적 흐름은 '실학'적 전통 속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조 이래 실학적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는가와 그와 같은 인식론이 현실에 투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실학적 사고가 소수의 유림세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책에 투영된 예가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식론적 전통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시기가 존재한다.⁴⁾ 그러나 실학이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한 (또는 하고 있는) 다양한 인식론적 사고들 중 가장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⁵⁾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농촌성과 도시성의 논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농촌성과 도시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다양한 학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합리론과 경험론, 그리고 실용주의와 실학적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식론적 기초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개별 인식론적 시각에서 해석되는 농촌성과 도시성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요약 및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II. 농촌성과 도시성의 일반적 이해

1. 농촌성과 도시성의 의미

도시성은 도시인의 삶의 방식(Wirth, 1938; Tittle and Stafford, 1992; Wilson, 1993)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반면 농촌성의 의미는 모호한 편이다. 서구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탐구가 도시사회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도시성이 논의된 반면, 농촌성은 도시문제로 인한 폐해로 농촌의 문제가 재 부각되면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농촌성은 정치경제부문의 관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고, 타 공간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개념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Cloke, 1996: 434).

농촌성이 도시민들의 관심에 의해 재구성되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Willits and Luloff, 1995), 최근 재구성된 의미인 어메니티와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농촌이 연구되는 것을 보면, 농촌성은 농촌의 기능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윌츠와 루롤프(Willits and Luloff, 1995: 454-462)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견해가 그릇된 점을 밝히면서, 도시민은

농촌을 도시 경관 및 문화의 환경적 보고로 보며 여가 및 즐거움의 공간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벨(Bell, 2000: 549)은 농촌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특정 장소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농촌성이란 다수인 도시인에 의한 ‘농촌공간의 의미 규정과 기능 부여’일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도시성과 농촌성에 대한 논의 또한 각 공간이 주는 공간 이미지를 규정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학문적 관점에 따라 농촌성은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획학적 시각으로 학교공간을 연구한 조용훈(2003)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특성으로, 박석희 외(2003)는 농촌 사람들의 기질과 농촌관광에 초점을 두었고, 안동만 외(2005)는 농촌의 경관을 농촌성으로 규정하는 등 농촌성과 도시성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의 입장과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그러나 농촌성과 도시성을 접근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미지에 의한 농촌성의 의미 부여 또한 농촌과 도시가 다르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농촌성과 도시성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다.

농촌성과 도시성을 연구한 위스(Wirth, 1938)와 클락 외(Cloke et al., 1997a) 등은 지역의 실체로서 농촌과 도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사회적 실체로서 도시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urbanization)를 규정하고(Wirth, 1938) 공간의 상호작용을 인식(Cloke et al., 1997b)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의미로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공간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지역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계획의 전통적 관심이 지역의 개발정비(고병호, 2000: 101-104)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계획이 파악하는 농촌성과 도시성은 물리적 공간의 차별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 농촌과 도시는 다르다는 전제는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질성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씨웰과 아멘드

(Sewell and Amend, 1943), 윌킨스(Wilkinson, 1984), 클락 외(Cloke et al, 1997), 박석희 외(2003)의 경우 농촌성은 공간으로서 도시와 다른 삶의 기반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삶의 형태로 규정된다. 하지만 농촌성과 도시성은 모두 삶의 영위 조건인 공간과 이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구성된 삶의 형태인 ‘인간+공간’으로 형성된다는 개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인식 대상의 차이에 대한 학제 간 차이는 경험적 실재를 보는 관점의 다름으로서, ‘학적’ 인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세계이며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파악된 세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백종현, 1990: 78).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시각에서 제기되는 농촌성과 도시성의 논의는 개별 학문의 인식차이에서 오는 개념규정으로 순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문의 기본적 가정을 통합적으로 견지하여 공간과 인간을 농촌성 및 도시성의 실체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2. 농촌성과 도시성의 분해

가. 농촌성과 도시성의 구성요소

농촌성과 도시성은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공간’, ‘인간’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농촌성과 도시성을 삶의 방식과 공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의 <Figure 1>에서 보듯이, ‘공간요소’, ‘공간과 인간적 요소’, ‘인간요소’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공간의 적응 및 이용과 관련된 인간 노력의 결과로 생성되는 정신적 측면(예: 전통양식)과 물리적 측면(예: 건축물)으로 ‘공간과 인간적 요소’는 ‘인간’, ‘공간’요소를 모두 가진 실체로서 존재한다. 계획학과 사회학의 경우도 이 부분에 상호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조용훈(2003)과 박석희 외(2003)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계획적 입장에서의 연구는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정신적 측면은 간과되었다. 반면 정신적 측면의 선행 연구들은 공간의 인간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채, 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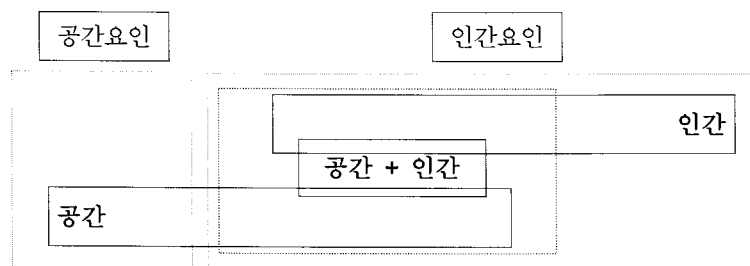


Figure 1 공간 속성에 대한 개념 규정의 모호성.

주관적 특성만을 강조하여, 농촌성과 도시성에 대한 의미규정이 다르게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실체론적 입장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지각의 결과로 보면, 주어진 공간의 제 현상들(기후, 지형조건 등)과 적용의 형태(가옥구조 등) 등의 정신적 측면이 반영된 물리적 결과는 지각되는 결과이며 적용의 결과는 생활양식이다. 생활양식은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화된 반응 양식(윤은중 · 김희수, 2005: 108)인 인간의식작용으로 볼 수 있어 '공간과 인간적 요소'와 '인간요소'는 인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농촌성과 도시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공간요인'과 '인간요인' 두 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공간적 실재 요인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분리는 '도시농촌이분법설', '도시농촌연속설', '도시농촌공생설'의 시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도시농촌이분법설은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파악함으로써 실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관념화된 공간의 실체를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농촌연속설'은 '고립국 모형'을 상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의 실제적 의미에서 - 양 공간이 극단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 는 타당하나, 이러한 논의는 양 지역 모두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없다거나, 한 지역만의 영향을 상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한 공간에 영향을 주는 지역은 다수의 많은 지역이며, 연계성이 강화된 시점의 경우 공간에 대한 영향력은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다.

'도시농촌공생설'은 도시와 농촌은 서로의 기능을 하며 그에 따라 공존한다는 것으로 이는 기능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각 하위체계는 반(半)독립적 성격을 지니고 나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전체를 존속시킨다(김성철, 1994: 283-284). 따라서 반독립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나누어져 생존할 수 없는 이중적 이론구조를 가진다.

다. 인간적 실재 요인: '직업의 場 및 생활의 場'

위스(Wirth, 1938)는 인구크기, 인구밀도, 사회적 이질성이 인간성(personality)과 사회구조를 분리시켜 도시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씨웰과 아멘드(Sewell and Amend, 1943: 180)은 농촌성을 커뮤니티의 인구규모와 관련된 요인으로 농촌인과 도시인의 기질은 상이하다고 생각한다. 클락과 굿윈(Cloke and Goodwin, 1993)은 기능주의 시각에서 비도시의 특성으로 농촌성을 규정하

며(Cloke, 1995 재인용), 휴고 외(Hugo et al., 2003)는 도시와 농촌인구의 기질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농촌과 도시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농촌성과 도시성은 상이하다고 보고 있다.

<Table 1>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적 특성차이에 따른 도시 및 농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로시그노와 크로우웨이(Roscigno and Crowley, 2001: 289)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개인적 배경(교육적 관점)이 낮은 공간으로 생각한다. 도시의 경제활동은 2·3차 산업이 중심이며, 농촌은 1차 산업 및 관련활동에 집중된다. 인구이동의 여러 원인 중 취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권상철, 2003: 60), 2·3차 산업은 전문직 및 기술직이 중심이고, 높은 교육수준이 요구될 것(이무근 · 이재기, 1987)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직업의 산업구조와 인구의 성격 및 연령구조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측면(노정현 등, 2005)과, 도시와 농촌인구의 교육적 특성의 차이는 곧 취업구조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특성은 곧 농촌지역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구조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다.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은 도시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농촌에 비해 수월하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 내 공간이 2·3차 산업이 주가 된다는 점은 거주 및 생산 공간이 동일한 공간 속에 위치하는 1차 산업과 달리 이직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인구이동 수준은 높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와 직업구조의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은 생산방식의 '인공성과 자연성' 중 어느 곳에 집중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인구의 성격 규명이 곧 생산방식이 주는 영향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인구 구성과 개별 공간내부에서의 협치(governance) 방식은 도덕과 자유의 표현의 경우, 농업이 보다 원초적 협업을 필요로 하고 - 물론 도시의 직업 구조 또한 협업을 필요로 하지만 - 생산의 장과 거주의 장이 도시에 비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구조가 미치는 영향과는 차별적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성 및 도시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직업 및 생활 장소'의 분리여부 문제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겠다.

'직업의 장/생활의 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객체로서 그 대상을 아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업의 장에서 만

나는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 대상을 인지한다고 할 수 있고, 생활의 장에서 만나는 대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촌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성격을 보이지만, 도시의 경우 분리될 가능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삶의 방식’으로서 도시인의 삶을 평가할 경우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도시성은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직업인으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 도시의 성격을 말할 때 흔히 표현되는 익명성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은 생활의 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불일치하는 도시공간은 ‘도시인의 삶’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경우 단절된, 즉, 익명성의 인간관계를 상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농촌성과 도시성의 의미에서 ‘삶의 방식’의 문제는 결국 농촌의 경우 ‘직업의 장/생활의 장’이 일치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며, 도시인의 경우 그 반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삶의 방식’으로 농촌성과 도시성을 반대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생산방식에서 오는 인간적 요소를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된다.

III. 인식론(epistemology)적 전통

인식론은 인식주체인 사람이 인식주체 외의 대상⁶⁾을 받아들이는 활동⁷⁾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관계는 인식론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경험주의를 비롯한 서양철학의 인식론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제로 객체에 대한 인식의 객관화에 초점을 맞춘다(김재범, 1998: 199; 조동일, 1997: 117). 안재순(2005: 40-41)은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Having mode는

물아분리(物我分離)를, Being mode는 물아일여(物我一如)를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제시한다. 서양철학이 과학적 지식의 확실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로서 귀납주의와 연역주의 방법론을 사용했다(진성배, 1994: 37)는 것은 서양의 진리관이 개체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상태여서 각 대상은 탐구를 통해 파악해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인식론 중에서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기론(理氣論)에서 이기(理氣)는 태극(太極)에서 시작되어 모든 대상에 공통으로 내재하는 실재로 본다. 그러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관점에서 리(理)는 곧 인간에도 내재하는 실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의 리(理)를 탐구하는 것은 곧 사물의 모든 이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리(理)는 소이연(所以然)의 보편자로서, 주재자(主宰者)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氣)는 소이연에 의한 소당연(所當然)이기에, 사물의 궁극적 진리는 리(理)이다. 이처럼 성리학 중심의 동양적 인식론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은 인식론의 사고이다.

인식론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곧 서양과 동양의 진리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가 상정하는 진리와 실학에서 생각하는 진리는 다르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곧 개별 대상물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경험과 이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각 대상의 특성이 파악된 것이 지식이며, 이의 축적은 진리를 형성한다고 본다. 반면 실학의 진리는 곧 우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실학들에게 우주적 질서는 곧 태극이며 이는 곧 리(理)와 기(氣)의 형태로 분화된다. 그러나 소이연의 보편자로서, 주재자로서의 리(理)를 파

Table 1 도시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 차이 (Hugo et al., 2003, p.279)

차원	도시	농촌
경제	2차 및 3차 산업활동 중심	1차 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산업 중심
직업구조	제조, 건설, 행정 및 서비스 활동	농업 및 다른 1차 산업 직업
교육수준과 설비	국가 평균 보다 높음	국가 평균 보다 낮음
서비스 접근성	높음	낮음
정보 접근성	높음	낮음
인구통계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	높은 출생율과 사망률
정치	자유와 급진적 요소의 더 많은 표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보수적 태도
인종	다양	보다 동질적
인구이동 수준	높음 그리고 순 유입형태	낮음 그리고 순 유출형태

악하는 것은 곧 우주적 질서 및 개개사물의 모든 이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서양철학은 개개대상물로서 특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반면, 실학의 진리는 리(理)를 파악함으로써 이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특성은 곧 인식대상인 개개사물과 인식주체의 구분에서 시작되나, 실학은 주체와 개체의 구분이 없는 일물(一物)로서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경험주의 · 실용주의와 실학이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큰 인식론상의 차이이다.

1.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합리주의 인식론의 기본적 전제는 ‘세계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하나의 전체이며, 세계의 구성부분들은 논리적 필연성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⁸⁾이고, 경험주의 인식론은 ‘경험은 지식에 앞서며 인간의 가치는 그것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최영출, 1990: 123). 하지만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모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 즉 사실을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하지만 이성과 경험에 대한 논증 속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인식대상에 대한 해석(사실의 확인)은 인간의 가치가 배제된 채로 사물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인식대상을 인식주체와 완전히 분리시켜, 감각을 통해 지각된 경험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표상적 관계로 한정한다.

경험주의의 초기 학자로 평가받는 베이컨(Bacon)은 인간이 유일하고 진정하며 보편적인 방법의 도움에 의지할 때 비로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백승현, 2003: 9). 이 생각에 사용된 논리의 전제는 ‘질서 있고 조직된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이끌어 내고 그 공리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보다 일반적 공리로 나아가는 것’(김영한, 1981: 155)으로 ‘경험을 통한 지식의 검증’으로 그 논리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인간경험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경험한 내용적 사실에 따라 경험주의 철학의 진리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경험주의 철학은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논리구조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반면 합리주의 철학자들은 경험주의가 안고 있는 ‘경험의 오류’와 그에 따른 논리 및 지식의 필연성에 대한 한계에 대한 반대로 지식의 근원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의 추론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데카르트(Descartes), 스피노자(Spinoza), 라이프니츠(Leibniz) 등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김광웅, 1997: 88)은 합리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심할 수 없는 체계적 지식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며, 단순한 지식의 확장은 결국 전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인식론 또한 인식주체와 대상을 분리한 상태에서 감각에 의해 지각된 대상에 대해 이성에 바탕을 둔 채,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경험주의자들은 철학적 이상주의(Idealism)보다는 물질주의(Materialism)에 가깝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바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직관적 이성, 즉 본유적인 앎으로부터 결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김광웅, 1997: 99).

칸트(Kant)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모두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전개한다. 그는 경험이전의 순수 이성에서 비롯된 ‘선험적(a priori) 지식’과 더불어 경험에서 출발하는 ‘후천적(a posteriori) 지식’ 모두를 수용하고자 했다(조종혁, 2004: 220). 칸트의 시각은 인간의 선천적 본유지식(imnate ideas)을 부정하고 경험을 통한 그리고 그에 따른 ‘인과율’만을 주장하는 경험주의자들은 논리전개에 있어 경험의 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는 것과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필연적 논리구조가 어떻게 경험과 일치할 수 있는가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경험을 통한 지식이 하나의 선험적 지식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추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험주의의 종합적 인과론(synthetic proposition)과 합리주의자의 분석적 명제(analytic proposition)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칸트는 경험주의적 ‘경험적-선험적 명제(synthetic a priori statesments)⁹⁾를 제시한다.

한편 흄(Hume)은 추론방법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귀납적 관찰에 근거하는 인과론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경험에 기초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신념/믿음일 뿐 반드시 논리적 확실성/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조종혁, 2004: 218).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성적 논증이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경험적 증거는 이미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넘어선 그 어떤 것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최희봉, 2004: 140)는 견해를 통해 개념을 비인과적인 용어로 환원시킴으로서 단순화된 인과관념을 제거하고 있다(김유신, 1995: 122).

이에 대한 칸트의 반론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프로그램화’된 선험적 카테고리 체계의 지시

에 의해 인식되는 현상이며,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은 결국 선험적 카테고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험주의적 인과론은 막연히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하나의 신화적 믿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험적 카테고리의 성격이 지시/결정하는 타당한 인과론으로 생각했다(조종혁, 2004: 221).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주장한 바는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사유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장의 논리는 결국 인식주체/인식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그 대상에 대한 실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방법은 곧 경험의 주체인 지각(감정)을 통제하는 방법론으로 귀결된다. 연역적 측면에서 경험의 부정을 통해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합리주의의 방법론은 이성을 바탕으로 추론한 논증의 부정을 통해 필연적 구조로 탄생되는 지식을 말한다. 반면 경험주의 입장은 귀납적 체계를 통해 이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감각기관을 통한 지식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경험주의와 순수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의 견해는 모두 상이한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으나,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연역과 귀납의 논리에서 두 입장은 하나로 통일된다. 연역을 통한 지식의 확장은 결국 '이론'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경험'을 부정하는 합리주의는 결국 하나의 체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전체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모두 각 철학의 배경은 두 철학이 노정하고 있는 철학적 배경과 함께 한다. 따라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모두 전제된 상황이 다른 문화권에 적용된다면, 보편적 진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관찰들이 배경 이론들에 몰두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각 패러다임의 가치는 실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비교될 수가 없다(햄린, 이병욱 역: 222). 이는 인식적 상대주의(epistemic relativism)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철학 또한 그 철학을 해석하는 인식론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론은 결국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시각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학을 사회구성주의 산물로서 생각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개별 연구자에 배태되어 있는 인식론의 영향이다. 우리가 믿는 지식은 믿음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그 사회 및 시대에 지식으로 인정받는 지식은 그 내용과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그 시대의 지식이라 할 수 있다. 현대와 달리 과거의 지식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생존을 위해서 사

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제 조건을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주의 및 경험주의 철학의 전통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는 결국 인식의 주체와 인식대상의 완전한 구분에 있다. 지각작용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이성과 불리함으로써, 파악되는 대상은 나와 다른 그 무엇이 되고 만다. 이들의 사물인식의 방법이 추구하는 것은 나와 대상의 철저한 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이 경험/이성의 강조 여부에 따라 서로 추구한 방향성이 달랐다고 하나,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사유한 근본적 방법은 보다 엄격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있는 것이며, 감정과 이성, 그리고 대상과 나의 분리에 그 철학적 바탕이 형성된다.

2. 실용주의

실용주의 철학은 미국인의 생활전반을 지배하는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 철학은 미국에서 발생되었지만,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은 경험주의, 합리주의의 전통 및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Joas, 1993). 실용주의 철학이 태동하던 시기에 학계를 휩쓸었던 '진화론'의 영향은 곧 실용주의 철학에 융합되어, 진리에 '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점은 경험주의자와 합리주의자에게 비판을 받는다.

실용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형이하학적 세계로 이끌어 내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학자들의 경우 진리에 '시간' 개념을 부여하여, 형이하학적 상황으로 내려놓았다는 점이 오히려 실용주의 철학의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Margolis, 1986; Verma, 1993a, 1993b). 이는 곧 진리라는 것은 철저히 상대적인 것이라는 관점을 제공하고, '때'와 '상황'에 따라 진리는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은 경험주의 및 합리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한층 능동적인 존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가 미국의 개혁시대를 규정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 것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식론으로서 실용주의는 곧 경험주의 철학의 전통을 강하게 받았다고 평가받는다. 경험주의 전통에서 이들의 사물 파악 방법은 또한 인식대상의 능동적 형태

에 관점을 부여하여,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분리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경험주의와 다른 점은 그와 같은 경험에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향으로 경험 또한 부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

3. 실 학

실학의 인식론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궁리(窮理)’의 두 방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격물치지와 궁리는 곧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실학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이다. 실학적 논의는 성리학과 유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성리학의 경우 논쟁의 핵심이 되는 이기(理氣)는 곧 태극의 논의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곧 이기의 작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해한다면, 물(物)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실학의 사고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실학의 논의 또한 성리학을 버린 것이 아닌, 방법론으로서 리와 기의 작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인식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희는 격물(格物)을 사물의 리(物之理)를 탐구(格)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또한 모든 사물(物)은 각각 그 사물의 리(理)를 지니며 그러한 개개의 리(理)는 보편적 리(理)의 발현이라 생각했다(김영식, 2005: 16). 이와 같은 주희의 격물이론은 곧, 만물에 리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희는 “리는 하나이나 나누어져서 서로 다르다(理一分殊)”의 입장에서 리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주희에게 있어 만물은 다른 대상이 아닌 나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파악된다.

리(理)에 대한 관점은 리(理)를 범칙성으로 해석하고 그것의 두 가지 의미인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 또한 존재와 당위의 범칙적 관계로 파악된다(최봉근, 2004: 145). 결국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반드시 각각이 그 ‘소이연(所以然)’의 고(故)와 그 ‘소당연(所當然)’의 칙(則)을 지니는데, 이것이 리(理)이다.

소이연은 그렇게 되는 까닭으로서, 소당연은 까닭에 연유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할 숙명적 존재이다. 따라서 성리학의 진리관에서 파악되어야 할 지식은 숙명적 존재자인 소당연이 아닌 소이연으로서의 리의 작용에 대한 탐구이다. 인식(格)의 대상(物)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인간관계나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서 생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격(格)’하는 ‘사물의 리(理)’는 보편의 하나의 리(一理)와 분리·단절되지 않은 분수리(分殊理), 즉 구체적 사물들의 이치이다. 주자는 ‘만물의 리(萬理)’를 궁극하고서야 하나의 리(一理)를 얻을 수 있다고 보

며, 하나의 리는 만물(萬物) 가운데 있지 않은 그것과 격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이기용, 1998: 190). 이러한 의미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논리전개는 연역 및 귀납과 차별적이다. 연역 및 귀납이 개별 사물의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리학의 진리탐구는 곧 ‘환연관통(豁然貫通)’으로 현 지식을 뛰어넘는 깨달음의 돈오(頓悟)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입장에서 인식주체와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로서 합쳐진 태극의 발현이며, 동시에 개체의 성격을 갖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리(理)의 본성은 동일하므로, 내 자신의 리(理)를 탐구하는 인식주체의 행위는 곧 인식대상의 리(理)를 탐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들어 있는 리(理)는 성(性)으로 표현되고, 마음(心)은 성(性)과 정(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내 자신의 성(性)을 맑게 하는 것은 곧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성리학에 있어 성(性)은 곧 사단(事端)의 발현이고, 기(氣)는 칠정(七情)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성(性)을 어지럽히는 정(情)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 의, 예, 지에 대한 일방적 탐구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단이 중시되는 지식관을 형성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은 곧 개별대상이 아닌 통합된 태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진리탐구 방향이 윤리의 일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이해, 특히 물(物)을 분기점으로 한 인식의 차이가 시대인식의 단절을 증언하는 중요한 논의이다(이광래, 2003: 136). 물(物)을 어떻게 보는가는 곧, 만물의 근원으로 주희가 리(理)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학철학의 인식론적 발상이 이와 같은 물에 대한 관점에서 출현하였다. 실학논쟁의 역사를 보면 결국 사물과 인간을 구성하는 리(理)와 기(氣)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인간에게 있어서 성정(性情)의 작용을 어떻게 보는가의 논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¹⁰⁾ Table 2에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를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학논쟁의 역사는 곧 이기론(理氣論)의 역사이면서, 또한 심성론(心性論)의 역사이다. 또한 실학의 인식론은 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론의 세계를 보인다. 곧 이기(理氣)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이들의 사상은 부침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실학사상의 공통점은 모두 분수지리(分殊之理)와 분수지기(分殊之氣)의 입장에서 만물을 각각의 개체로 파악하나 결국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성정(性情)의 논의 또한 동일한

Table 2 사상가별 실학적 인식론

유형원	·자연관 : “理氣不相離” → “理는 氣에 內在하는 理” ·심성론 : “理氣不雜” →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四端은 七情中에 發現” ·통합 : “理氣不相離의 대전제 속에 理氣不雜강조”
이 의	·자연관 : 理氣不相離의 입장에서 主理나 主氣 모두 맞음 : 理一之理(보편성) 측면보다 分殊之理 → 個體의 理(性=在物之理의 個體性 주목) ·심성론 : 四端理發을 강조 仁之端인 惻隱 ¹¹⁾ (公的) ≠ 七情의 哀(私的) 四端=天理之公 形氣之私=人欲私 ·개인적 욕구를 낮추어 공동체 의식에 초점(상업을 진흥시키지 않은 이유) ·남인계열(퇴계학과)는 人欲을 억제하는데 초점 → 公共性 확보 → 1) 토지제도 2) 과거제도 3) 신분제도
홍대용	·자연관 : 理氣不相離 “理를 氣속에 內在하는 것” “氣의 차이에 따라 理가 차별” ·심성론 : 理氣가 不相雜함을 지적하여, 理의 보편성 확보 “人人物物의 다름은 氣에 의해 결정” → “本源의 理에서는 人性과 物성이 같음” → 人物性同論 → 그러나 以人視物 以物視人(상대주의), 人貴物賤비판 → “人=物”

것이다. 따라서 실학의 인식론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구분이 없고, 인식대상과 인식주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일물(一物)로서 세상을 파악하는 인식론을 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인식론적 전통과 공간인식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¹²⁾ 인식론은 우선 인식주체인 인간과 인식대상의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을 시작으로 한다. 반면, 실학의 인식론은 이기론(理氣論)의 전통 속에서 주리론(主理論), 주기론(主氣論), 기철학(氣哲學) 모두 리(理)와 기(氣) 중 어떠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하지만,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는다. 즉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사이에는 분리가 아닌 전체로서 일물(一物)의 시각을 견지한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도식에서는 사물의 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리를 파악해가는 구조를 갖지만, 분리하지 않는 일원론적 관점에서는 본원의 질서인 리(理)의 탐구를 통해 만물의 이치를 궁구해가는 단선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따라서 경험주의 및 합리주의 특성이 개개 사물에 대한 관찰에서 그 이성과 경험을 엄격히 분리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실학’의 관점은 이성과 경험의 통합적 시각에서 이를 관찰한다. 실학에서 이성은 곧 성(性), 경험은 곧 정(精)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의 심(心)의 구조가 성

(性)이고, 성(性)의 근원에서 외부 사물에 대해 작용인 정(情)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인식된다. 즉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인식론의 방향이 경험/이성의 구분에서 시작되어 외부세계와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었다면, 실학의 인식론은 성정(性情)의 통합에서 경험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이 학문을 하는 방법론으로 연결되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실용주의는 외부 세계의 관찰과 실험, 그리고 이를 통한 추론과 귀납적 확장의 과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형성한다. 즉, 경험과 이성이 합쳐진 입장에서 학문의 방법은¹³⁾ 양자의 조화이며, 이는 곧 활연관통(豁然貫通)과 같은 인식의 깨달음에 대한 과정으로 인식적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면,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모두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인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이 경험한 공간인식은 경험의 역사적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며, 이러한 객관적 관찰과 경험에 따라 농촌성과 도시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주의 철학이 발전했던 영국의 경우 도시의 발달은 곧 산업 발달의 역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이들이 경험했던 도시의 기능은 시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산업의 발달을 통한 부가 형성되며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를 통한 사회적 폐쇄의 경험은 이들의 도시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농촌은 상황적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체는 독립적 개체로 해석되기 보다는 도시

성 형성과정에서 수세적으로 형성되는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빈곤과 같은 농촌문제는 농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농촌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농촌의 문제를 빈곤(poverty)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보는 농촌은 도시화의 과정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인구유출(deprivation)의 경험적 입장에서 농촌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loke, 1996: 436).

미국의 실용주의 입장에서 도시를 보는 입장은 영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실용주의 특성은 ‘지금 현실에 그러한 사실이 맞는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성의 문제는 결국 미국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용도로 재구성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성을 연구한 미국의 연구는 농촌의 문제를 빈곤(poverty)의 문제에 집중시키고, 농촌의 기능 부여는 곧 미국인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개에 그 특성을 맞추고 있다. 현시점의 실용주의 입장에서 부여되는 농촌의 기능은 곧 이들이 바라보는 농촌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미국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농촌성의 형성은 도시성 형성의 지속에 따라 가변적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농촌성의 형성은 결코 사회발전에 비관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실학적 인식론의 경우 농촌은 도시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상정한다. 단지 농촌과 도시의 문제는 현재 상황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이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태극의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분수지리와 분수지기의 입장에서 농촌의 문제는 곧 도시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¹⁴⁾ 또한 공간의 변화가 태극의 입장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농촌의 문제로 한정할 경우 농촌은 곧 새로운 기회를 통해 도시로 발전이 지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인식이 얼핏 앞서 분석했던 서구의 인식론적 사고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다 분명한 것은 실학의 인식론이 견지하는 공간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분수지리 및 분수지기의 관점은 ‘공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곧 농촌과 도시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각 지역의 실체는 다르나 곧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문제는 다른 실체로서 존재하나, 그 원인은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공간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간과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공간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최한기의 지효사상에서 이러한 사례가 잘 나타난다. 최한기에게 있어 ‘지(地)’는 곧 ‘효(孝)’의 대상이다. 이는 공간과 인간은 하나로써 통일된다는 것이다.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입장에서 공간과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학적 세계관에서 부여된 인간의 특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공간의 지배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공간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물(一物)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정당화 될 수 없고, 그로 인해 공간과 인간은 종속의 관계가 아닌 ‘조화’를 이룩해야 할 일체(一體)이다.

이러한 시각은 지역과 객체의 변화를 어떻게 관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영향을 받은 영·미식의 사고에서 공간에 대한 연구는 자연철학을 사회과학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공간의 문제(성격)를 파악하며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유추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또한 각 지역은 기능주의 시각¹⁵⁾에서 전체로의 통일로 지향된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실학’의 관점은 기능주의와 비슷하나 기능주의가 아니다. 기능주의 시각에서 지역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 기능을 전제한다. 각 지역을 따로 떼어놓을 경우 지역은 그 실체적 특성을 잃는다. 이러한 점이 실학에서 농촌과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공생적’ 관점 제공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식론적 전통으로 실학을 규정하고 영국의 경험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인식론적 사고를 비교하여 농촌성(rurality)과 도시성(urbanism)에 대한 인식론적 함의를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또는 공간변화는 그 사회 또는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론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기본 가설을 설정하고,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철학적 사조에 기초한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가정하였다. 인식론적 이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농촌성과 도시성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성(rurality)과 도시성(urbanism)의 해석학적 의미는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론적 배경의 바탕이

되는 철학의 상이함은 연구의 출발을 다르게 규정하는데 동서양의 철학적 인식론은 그 가정의 설정과 변화의 동력,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식론은 인식주체인 인간과 인식대상의 관계 설정의 논의에서 시작되며, 인식된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가 인식주체와 개체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인식론을 전개한 반면, 실학의 인식론은 인식주체와 개체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인식론을 전개하였다.

지역의 인식에 있어 영미식 사고인 기능주의 관점은 국가라는 한 실체가 존재하며, 각 지역은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공간이 아닌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의 생존을 위해 기능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그러나 실학의 전통 인식론은 인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된다. 부분으로 나누어진 공간 또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실학적 인식론의 공간인식은 공간을 분리(농촌과 도시)하면서도, 하나로 통합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분석의 틀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농촌 이분법의 사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경험주의 및 실용주의 인식론의 시작은 곧 경험을 통한 지식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시작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도시성의 견해는 도시의 발달 과정 속에서 겪었던 사실에 근거한, 그들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이다.

인식론에 기반한 철학적 전통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에 관계없이 인간 사고의 형성에 그 영향력을 노정해 왔다. 인식론적 사고에 기반한 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은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는 지식과 이성을 통해 개별 사회 또는 국가 고유의 인식론적 전통을 형성하였음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서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토대는 바로 서구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적 전통에서 탄생한 것이며, 그들에 의해 생성된 인식론인 것이다. 따라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실용주의와 실학 등 모든 인식론적 이해는 결국 철학 형성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서구의 역사적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지적 토대는 우리식의 인식론과 다르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즉, 모든 과학적 사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은 개별 사회의 역사적, 사회-정치적 인식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계화되고 있는 농산업과 농촌공간의 등치성이라는 전근대적 공식이 함몰해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다원적 기능이라는 새로운 산물이 농촌공간에 이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적 상존이 가능하다는 실학적

인식론체계는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BS0157)

- 주1) 朱子는 ‘格’을 ‘致’로 해석한 程子의 해석을 수용 발전시켜 격물치지론,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모든 사물의 모든 측면(表裏精粗)과 내 마음의 온전한 원리와 크나큰 작용(全體大用)을 전부 깨닫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박성규, 2002: 146).
- 주2) 전정희(2005)는 이용후생학파가 박규수의 개국론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고, 김한식(2005)은 실학이 동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홍정근(2005)은 실학자인 홍대용과 정약용의 현실인식을 人性·物性론을 통해 성리학의 현실인식을 밝히고 있다. 한정길(2005)은 실학에 대한 양명학의 영향을 부정하고, 실학자에게 양명학적 사고가 보이나 양명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이동관(2004)은 일곱차례의 東亞實學國際然·討論의 결과 韓·中·日 삼국의 실학개념이 뚜렷이 있으며, 삼국의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고 말한다.
- 주3) 신경준, 정약용, 홍대용 등의 지리사상이 ‘공간이론의 사상가들(국토연구원, 2001)’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지리인식이라고 보다는 현실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상업 및 도로의 확충에 관한 것들이다.
- 주4) 이광래(2003)는 사상의 중층적 의미로서 실학을 평가하고 시대 전반에 걸친 전통으로 보지 않는다.
- 주5)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개편내지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들은 관료와 마찬가지로 <<주례>>를 기본적인 개혁의 모델로 생각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개혁의 방법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장희홍, 2005: 31).
- 주6) 인식주체는 사람이고, 인식대상은 인식주체 외의 모든 것임(최병환, 2003: 249).
- 주7) 인간은 물질적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그 세계를 규명한다. 즉 ‘물질적 세계→감각기관→이성’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전통은 지식실체의 파악을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각 사상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 주8) "합리론"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www.britannica.co.kr, 2006. 4. 24자 기사)
- 주9) 하나의 당구공을 쳤을 때 그것에 부딪힌(경험적 사실) 다른 공의 진행방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선형적, 이성적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조종혁, 2004: 220).
- 주10) 중농학파의 효시로 여겨지는 유형원의 경우는 이러한 논쟁에 더욱 근접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의 조선실학자들의 성리학적 관점은 안재순(1991)의 것을 따랐다.
- 주11) 惻隱 : 다른 사람의 일로 내가 슬퍼지는 것, 哀 : 내 문제로 내가 슬퍼지는 것
- 주12) 실용주의 인식론의 방법은 경험주의 철학과 매우 많은 점이 흡사하다. 경험주의의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상정하고,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긍정한다. 그러나 경험주의가 본

경험은 지각을 통해 인지하는 과정으로서, 경험 그 자체는 진리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용주의 인식론은 당시에 유행하던 ‘진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경험에 ‘시간’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시간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경험과 현실의 일치일 때,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은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주13) 조선철학의 발전과정은 곧 합리주의에서 경험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理와 氣의 입장에서 개개 사물인 氣의 추구 보다 그 본연의 질서인 理의 확인을 통해 우주적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은 主理論과 主氣論, 氣哲學의 철학적 입장을 견지하나, 이 모두 개개의 理 및 氣의 질서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즉 이들은 합리주의와 비슷한 듯하나 -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고, 본연의 理, 이것은 인간에게서 性으로 발현된다. - 理氣·性情을 구분하긴 하나, 결국 양자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 분수지리와 분수지기의 입장에는 보편적 리를 추구하는 합리주의의 경향이 보이지만, 분수지기의 입장의 경우, 개체를 달리 파악한다는 점에서 경험주의 철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수지리와 분수지기의 입장 모두 또한 근원적 질서인 太極을 상징하고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다른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 주14) 이러한 입장은 곧 현 한국의 사회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관점이라 생각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생지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생존하는 경향이 영국, 미국과 달리 크다는 점이다. -에서 농촌의 문제는 곧 도시인의 문제로 상통하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기능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룰 때 문제에 궁극적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주15) 여기 돼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돼지는 살아있는 하나의 대상이다. 그러나 돼지의 각 신체부위와 장기들은 또 다른 살아있는 실체이다. 그러나 기능주의 시각에서 각 부분은 전체의 실체(돼지)를 위해 각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으로 돼지를 나누어 놓았을 경우, 그 조직이나 실체는 살아서 있는 상태이나, 돼지라는 개체는 죽어 없어지는 생명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놓이게 된다.

참고문헌

- 고병호, 2000,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3(2), 101-120.
- 국토연구원, 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59-73.
- 김광웅, 1997, 기초·원리·응용 방법론 강의, 박영사.
- 김성철, 1994, 풀란차스 인식론의 지적 전통, 구조주의, 체계론,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0(2), 269-289.
- 김영식, 2005,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 김영환, 1981, 베이컨의 방법: 그 의의와 한계, 역사학보, 92, 137-173.
- 김유신, 1995, 경험주의 설명이론: 험펠과 반프라센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37, 119-146.
- 김재범, 1998, 동서사상의 비교를 위한 인식 증거: 동서의 참된 만남과 생산적인 동아시아담론을 위한 인식론적 정초작업, 전기사학회 발표논문집, 194-200.
- 노정현, 김태균, 김재진, 박영선, 2005,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령구조의 연관성 및 영향력 분석, 국토계획, 40(2), 171-182.
- 박석희, 이동기, 윤상현, 2002, 농촌다움의 의미와 측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9(1), 22-37.
- 박성규, 2002, 格物致知와 正名, 철학연구, 56, 145-170.
- 백승현, 2003, 17세기 지식혁명과 근대 정치학의 인식론적 변환의 토대: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6, 1-25.
- 백종현, 1990, 실재와 경험적 인식, 철학, 34, 77-100.
- 안동만, 손주동, 김명수, 2005, 농촌경관의 농촌다움과 선호도 평가 연구: 내국인과 외국인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1(3), 43-52.
- 안재순, 1991,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상적 계보: 성리학파와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 12, 45-78.
- 안재순, 2005, 동양사상의 ‘조화’와 ‘균형’ 관념: ‘조화와 균형’에 대한 유가적 해명, 동양철학연구, 44, 37-65.
- 윤은중, 김희수, 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105-120.
- 이광래, 2003,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 열린책들.
- 이기용, 1998, 울곡의 격물궁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사학, 11, 187-211.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동환, 2004, 실학의 철학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8, 285-298.
- 이무근, 이제기, 1987,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 직업교육연구, 6(1), 67-74.
- 장희홍, 2005, 조선후기 실학자의 환관제도 개혁론: 반계, 성호, 다산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41, 29-53.

25. 전정희, 2005, 실학사상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사상적 계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115-143.
26. 조동일, 1997, *우리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27. 조용훈, 2003, 학교건축의 도시성과 농촌성: 학교건축의 경계성, 지역성, 낭만성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10(3), 94-101.
28. 조종혁, 2004, 경험주의 VS. 이성주의: 방법론적 합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11(1), 199-235.
29. 진성배, 1994, 경험주의의 기초와 확률문제, *동서철학연구*, 11, 37-50.
30. 최병환, 2003, 통일사상에 의한 새로운 인식론의 시도, *동서철학연구*, 28, 247-275.
31. 최봉근, 2004, 변화와 생성의 관점에서 본 퇴계철학의 소당연과 소이연: 유기체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40, 141-167.
32. 최영출, 1990, 행정학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경험주의와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6, 125.
33. 최희봉, 2004, 흠의 철학과 근대 과학: 과학의 확장과 그 인식론적 기초, *범한철학*, 34, 125-150.
34. 한정길, 2005,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양명학관, *한국실학연구*, 10, 219-251.
35. 햄린(D. W. Hamlyn), 이병욱 역, 1970, *인식론*, 서광사.
36. 홍정근, 2005, 조선후기 성리학파와 실학파의 인성·물성론: 녹문, 노사, 담헌, 다산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4, 45-104.
37. Barnes, Trevor J. and Sheppard, Eric. 2003, *Introduction: The Art of Economic Geography,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38. Bell, David. 2000, Farm Boys and Wild Men: Rurality, Masculinity, and Homosexuality, *Rural Sociology*, 65(4), 547-561.
39. Cloke, Paul, Milbourne, Paul and Thomas, Chris. 1997a. *Contested Countryside Cultures*, New York: Routledge.
40. Cloke, Paul, Milbourne, Paul and Thomas, Chris. 1997b, Living Lives in Different Ways? Deprivation, Marginalization and Changing Lifestyles in Rural Eng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22(2), 210-230.
41. Cloke, Paul. 1996, Rural Life Styles: Material Opportunity, Cultural Experience, and How Theory Can Undermine Policy, *Economic Geography*, 72(4), 433-449.
42. Dancy, Jonathan. 1985,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Oxford: Blackwell.
43. Foucault, Michel. 1994, *Ethics-subjectivity and Truth*, Cambridge: The MIT Press.
44. Fridemann, John. 1987, *Planning in the Public Domain: From Knowledge to A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5. Gartner, William C. 2005, Rural tourism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 short history, a problematic futur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46. Habermas, Jürgen. 1994, *Postmetaphysical Thinking*, Cambridge: The MIT Press.
47. Hindess, Barry. 1977, *Philosophy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 Brighton: Harvester press.
48. Hugo, Graeme, Champion, Anthony, and Lattes, Alfredo. 2003,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of Settlements for Demograph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2), 277-297.
49. Ilbery, Brian. 1998,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UK: Longman.
50. Joas, Hans. 1993, *Pragmatism and Social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51. Macionis, John J. and Parrillo, Vincent N. 2004, *Cities and Urban Life*, New Jersey: Prentice Hall.
52. Madsen, Lene Moller and Adriansen, Hanne Kirstine. 2004, Understanding the use of rural space: the need of multi-methods, *Journal of Rural Studies*, 20, 485-497.
53. Margolis, Joseph. 1986, *Pragmatism without Foundations*, New York: Blackwell Press.
54. Roscigno, Vincent R. and Crowley, Martha L. 2001, Rurality, Institutional Disadvantage, and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2), 268-292.
55. Sewell, William H. and Amend, Eleanor E. 1943, The Influence of Size of Home Community on Attitudes and Perso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 180-184.
56. Tittle, Charles R. and Stafford, Mark C. 1992, Urban theory, Urbanism, and Suburban Residence, *Social Forces*, 70(3), 725-744.
57. Verma, Niraj. 1993a, Metaphor and Analogy as Elements of a Theory of Similarity for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3,

- 13-25.
58. Verma, Niraj. 1993b, Revisiting Rationality in Planning: Pragmatic Planning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35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the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59. Wilkinson, Kenneth P. 1984, A Research Note on Homicide and Rurality, *Social Forces*, 63(2), 445-452.
60. Willits, Fern K. and Luloff, A. E. 1995, Urban Residents' Views of Rurality and Contacts with Rural Places, *Rural Sociology*, 60(3), 454-466.
61. Wilson, Thomas C. 1993, Urbanism and Kinship Bond: A Test of Four Generalization, *Social Forces*, 71(3), 703-712.
62.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접 수 일: (2009년 8월 7일)

수 정 일: (1차: 2009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7일)

■ 3인 익명 심사필